

## 코로나19 관련 사기 극성 “피해 입은 경우 신고해야”



▲ 코로나19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진=shutterstock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지난 14일 본보에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척 하워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북서부 지역 오피스 국장은 “지난 달 24일 현재 코로나19 및 경기부양 수표 사기 신고가 40만 건 이상 접수됐다.”며 “사기 사례 중 3분의 2는 개인정보 유출이며, 소비자 피해액은 3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지원금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도 유행하며,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또 사기를 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워드 국장은 “예를 들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면 선물을 준다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유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상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빼간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백신 관련 설문조사 및 무료 상품 증정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사기이므로 조심해야 한다.”며 “진짜 설문조사기관은 상품 증정을 이유로 신용카드 번호나 은행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가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주택 난민들을 노리는 사기도 유행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 등 인터넷 장터란에 집주인을 가장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주택을 싼값에 임대한다고 광고하고, 세입자에게 2개월치 세큐리티 디포지트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힌다.

FTC 소비자 비즈니스 교육부의 앤드류 존슨 부장은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사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FTC에 신고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하지만 사기 사례를 접할 때마다 FTC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기 사례가 접수돼야 새로운 사기 수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 신고는 [www.ftc.gov](http://www.ftc.gov) 로 하면 된다.

## 소망소사이어티 ‘리빙 트러스트·상속법’ 관련 세미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비전으로 ‘웰빙, 웰 에이징, 웰 다이닝’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유분자)가 매달 개최하는 세미나가 4월 21일(수) 오전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화상으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홍 변호사(뉴욕라이프 보험회사 고문)가 강사로 나서 자산 리빙 트러스트(생전 신탁)를 비롯해 새로 바뀐 상속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상속법·상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

영사관 법률 고문, LA한인타운 포항하고 있는 연방 하원 33지구의 다이앤 왓슨 의원 자문역 등을 역임했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무료 웨비나를 열고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월 웨비나를 위한 사전 질문 및 참가 신청은 4월 19일(월)까지이다. 참가 신청 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웹 주소를 알려준다.

▶ 문의: (562) 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mailto:somang@somangsociety.org)

## LA총영사관 OC 순회 영사 서비스 이용 민원인 폭증

LA총영사관의 오렌지카운티(OC) 순회 영사 서비스에 민원인이 폭주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12시 ~ 오후 1시: 점심시간)까지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서 시행되고 있는 순회 영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4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할 만큼 민원인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OC 거주 한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OC한인회(회장 권석대) 측은 LA총영사관이 순회 영사 서비스 제공 횟수를 늘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권석대 회장은 “영사관 측에 일주에 세 번 정도 출장 영사 서비스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OC한인회관 내에 영사 업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OC한인회 회장 권석대. 사진=OC한인회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순회 영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증가하면서 영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OC순회 영사 서비스도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3시간 30분에 불과해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OC한인회 측의 입장이다.

OC거주 한국을 소지한 한인들도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LA총영사관까지 가는 것보다 순회 영사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LA총영사관의 OC 순회 영사 서비스의 개선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인 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 오승윤 공인 회계사 (Michael S. OH, CPA)

오승윤 공인 회계사는 미국 기업 CFO로서의

- 1. 풍부한 실무 경험
  - 2. 정확한 회계 업무
  - 3. 올바른 직업 윤리로
- 기업과 개인의 절세를 도와 드립니다.



빠른  
환불

회사 설립 및 상담	Corporation 설립 및 해산,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Partnership(General & Limited Partnership)
세금 업무	개인/Corporation/LLC/Partnership 등에 관련된 모든 세금 보고
세무감사 대행	IRS, SBOE, FTB, EDD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회계 업무	Computerized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Service,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투자 자문	IRA, SEP, 401K, Mutual Funds
기타	사업체 분석, Accounting System 상담 및 설치(Quickbooks Pro Specialist), ABC License

**E-2 관련  
회사 설립 및 상담  
(BUSINESS PLANNING)**



UC San Diego졸업  
미 해양연구소 근무(NASC)  
미 기업 및 한국 대기업 CFO역임  
Member of CS

**714.522.1120** FAX. 714.522.11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